

135. 죽음 & 다가올 삶.

2015.09.18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하트드웰러스 여러분, 주님의 달콤한 임재가 저희와 함께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캐롤 자매와 그의 남편 호머를 위해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호머는 그의 동생과 그의 동생의 아내를 갑작스러운 오토바이 사고로 잃어버렸어요. 모든 가족들이 슬퍼하고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이 이 주제로 말씀하셨어요. 매우 시기적절하게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호머만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 주위도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나는 너희들이 더 세심하고, 더 집중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여 그들을 감동시키기를 바래. 나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야. 그리고 너희들을 위안하고 위로하기 위해 포도나무에서 가장 좋은 포도를 가져오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어.

나의 모든 자녀들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모두가 겪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그들의 삶에서 명백하게 보이는 그 이상으로 그들의 심장 박동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요청해. 이를 위해서 너희들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을 정도까지 너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분리되어야 해. 내가 너희들에게 가리켜줄때 나의 영이 속삭이는 것을 들어라. '이 영혼들은 고통받는 영혼들이야. 그들은 나의 만집이 필요해.'

(클레어) 오 주님, 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장님이고 둔한 것 같아 보여요.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제발 제 자신보다 그들에게 더 민감해지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저는 상점에서 쇼핑을 하고, 심부름을 하는등 제가 하는 일에 너무 열중하였지 영적인 일과 제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무엇을 하거나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변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둔해져요.

(예수님) 나의 신부들아, 이것은 너희 모두를 위한 좋은 기도야. 너희들이 내가 가는 징조를 찾기 위해 극도로 열중하는 것은 종종 내가 사역을 위해 너희들에게 보낸 영혼을 지나치고 있어. 너희들의 의제들로 꽉 찼을 때 너희들은 너희들의 목표들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 세상에서 그것은 허용되지만 영적으로 이것은 심각한 잘못이야. 주변 사람들, 특히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더 민감해지는 것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해라.

지금은 영혼들이 가장 순응하고 가르칠 수 있는 상처를 입은 계절이야. 그들이 중요한 질문들을 하고 그들의 삶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계절이야. 죽음은 현상유지를 방해하고 짧은 삶을 맨앞으로 당기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야.

이 가르칠 수 있는 순간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 그 순간들은 너희들의 삶의 깊은 의미를 일깨우고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해. “내가 저 관에 들어가 있었다면 어떨까? 부름을 받은 일들을 내가 모두다 했을까? 주님께서 ‘잘했다 너희들의 주인의 기쁨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하실까?” 이러한 질문들은 더 깊은 회심들과 은혜와 지혜 안에서 성장할 기회들의 시작이 되.

나는 이것이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 순간들은 저항이 무너지고 마음이 드러나는 새벽 직전의 어둠의 시간에 시작 되. 나는 이 시간에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는 질문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 나의 종들을 찾아가.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일까?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있을까?”

이별의 고통에 나도 울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위로의 팔로 감싸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나의 신실함을 굳게 약속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젊어 지고, 웃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질 것이며, 지구상에서 볼 수 없었던 빛으로 빛날 거야.

16 그것은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7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18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4장16~18절)

곧, 정말 곧. 사랑하는 신부들인 너희들도 이 지구에서 작별인사를 해야 했던 사람들과 나란히 서있게 될 거야.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의 친척들과 함께 휴거 되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거야. 이것이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얼마나 훌륭하고 경이롭고 위안이 되는지.

1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2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요한복음14장1~2절)

이 곳에서 너희들은 다시 웃을 것이고 전에 떠나보냈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뛰놀게 될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해 준비된 이 모든 영역과 거룩한 분 안에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크게 기뻐할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이 너희들의 취향에 맞을 거야. 너희들이 이 지구에서 가장 즐거워하였던 바로 그곳이 천국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그곳이 될 거야. 너희들은 피크닉을 함께하고 탐험을 함께하고 서로의 집을 방문하고 영원히 모두 함께 할 거야.

그래, 천국에는 배움, 놀이, 학습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창조가 있을 거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리고, 오, 천국을 채우기 위해 너희들에게 줄 훌륭한 위치, 마음과 생각이 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멋진 일들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해 놓고 있어!

더 이상 오해, 경쟁, 질투 등이 없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와 자매의 교화를 위해 일해. 너희들은 냉담한 무관심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하고 수용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은 칭찬과 격려가 될 거야.

천국에는 질투나 무시가 없고 오직 기쁨과 긍정만이 있어. 모든 재료와 장비가 제공되어져서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을 거야. 너희들은 천국에서의 삶의 편안함과 영광을 사랑하게 될 거야.

찬양할 때가 되면 너희들의 마음은 누구도 끌 수 없는 타오르는 불이 될 것이고, 치유되어야 할 남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될 거야. 너희들은 절대로 다시 고군분투하거나, 슬퍼하거나, 애통해 하지 않을 거야. 모든 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거야. 모든 곳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아무에게도 부족함이 없을 거야.

이것이 천국의 최고의 축복이야. 그러니 마음을 다잡고 위로 받아라. 너희들의 지구에서의 삶은 거의 끝났고 곧 너희들은 이 삶에서 빼앗겼던 사람들과 재회하게 될 거야. 꽃과 푸른 잔디로 가득한 무성한 초원에 거대한 참나무가 있고 그 아래 담요를 깔고 너희들의 가족 이름이 적힌 피크닉 바구니와 함께 모든 친척들과 애완동물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이 생각으로 서로 위로해 주어라. 내 사랑아. 나는 곧 갈 거야.